

인간은 누구나 자기 목표가 있어 움직인다. 이 움직이는 것이 곧 생활이다. 이 생활은 곧 인연과의 순환이다. 이 순환이 나쁜 것을 악순환이라고 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선만이 가능하다. 한낱 한 것을 없애는 것은 열광인 것과 같이...

온라인상의 포교 활성화

총지중 홈페이지(www.chongji.or.kr) 개편

총지중은 정보화 시대에 온라인상의 포교 활성화를 기하고, 총지중의 종지 및 밀교에 대한 기초이론, 신행상담 등 다양한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8월3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www.chongji.or.kr)는 지난 7월 초 웹전문가에게 의뢰하여 2개월간의 작업으로 선보이게 되었다.

특히 이번 홈페이지는 메인화면에 공지사항 및 종단 행사 내용을 설정하여 종단의 대외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종단 종사자 및 교도, 불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종단의 행사일정을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총지중의 교리 및 밀교, 불교에 대한 궁금사항에 대하여 법장원의 연구원들이 신속하게 답변하고, 또한 신행상담 코너에서는 교도 및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고민이나 문제점 등 신행에 대한 상담을 총지중 주요인 법승 정사께서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는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신속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바쁜 일정으로 인해 절에 나오지 못하는 교도들과 불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교도들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홈페이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차후 홈페이지에 대한 수정사항 및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지도연락을 당부하였다.



▲온라인상의 포교를 담당할 총지중 홈페이지.

또한 홈페이지 개편 후 한 방문자는 게시판에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쉬임없는 꾸준한 관리 즉 최신 자료, 적절한 게시판 관리, 최근의 종단의 대외사항 등을 업데이트 할 때만이 그 생명력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총지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였다.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종조님의 뜻과 유훈을 가슴깊이

제 23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가 9월 8일 서울경인교구는 총지사서에서 지방은 각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종조멸도절 추선불사는 총지중의 창종주인 원정 대성사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불도를 이루하신 거룩한 뜻을 기리고, 종조님께서 총지중을 창종하신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종조멸도절 추선불사에서 법공 통리원장은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불교에 대한 심오한 뜻을 헤아리시고, 관세음보살의 본심미묘인 육자대명왕진언 '음마니반메움'을 본존으로 정언, 결인을 통해 신·구·의 삼밀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총지중을 창종하셨습다. 이러한 종조님의 깊은 가르침을 받들어 종단의 화합과 평화로 총지중이 세계적인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올해에는 그동안 종단의 오랜 숙원이던 종조절이 건립되어 감개무량하다"고 하였다. 이번 종조멸도절 추선불사는 총지사 2층에 종조절이 건립됨으로 인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법장원에서는 "총지중의 종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종조님의 교

과 사상에 대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종조님에 대한 각종 세미나 및 논문 발표 등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참 깨달음을 전 세계에 국제포교사 문화체험

제 3회를 맞이하는 국제포교사 문화체험이 9월말부터 10월초에 경북, 강원도, 불국사 등의 유명사찰 및 한국의 문화 유적지를 방문하며, 해외포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포지엄, 각 분교별 토론, 해외 포교사들의 체험담 소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포교사 문화체험은 조계종, 진각종, 총지중, 원효종, 원불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총지중도 매년 2명씩을 파견하여 타 종단의 해외 포교사들과 교류를 증진시키고 해외 포교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 및 포교방법 등을 체험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4명 정도의 인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포교사 문화체험을 기반으로 차후 해외 포교의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총지중은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불교계에서 주요종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동시에 온라인상의 포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총지중 불우이웃돕기의 자비실현

괴산 경로위로, 장학금 전달

"삼악도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데는 탐욕으로 지은 업이 첫째가 되고, 욕바라미 중 보시가 으뜸이 되느니라. 간담은 능히 착한 길을 막고 재물로 보시하면 반드시 악한 길을 막느니라. 만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넉넉히

못하더라도 아끼지 말라. 올 때도 한 물건 없이 왔고, 갈 때도 또한 빈손으로 간다. 나의 재물에도 연연할 것 없거늘 다른 이의 재물에 어찌 마음을 돌까? 사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백년 탐물은 하루아침의 티끌이 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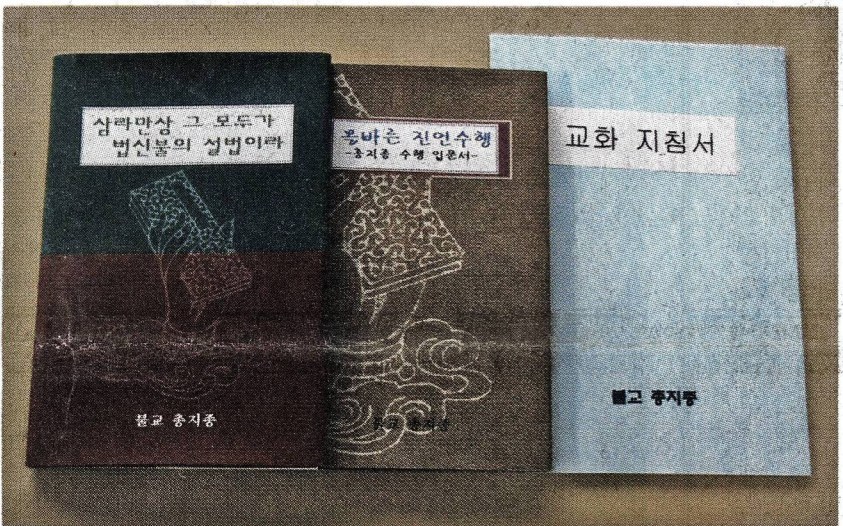
총지중은 8월 중순 충북 괴산군 이평리 노인들의 경로잔치에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위로금 전달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구현하는 길로 충북 괴산 수련원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로하는 경로잔치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총지중은 종립 동해중학교 학생들 중 학업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년 10명에게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총지중 사회복지 재단에서는 그동안 전국 보살님들이 매달 십시일반으로 동참하고 있는 후원금을 어려운 이웃 및 교도들을 돕기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단관련 각종 도서 발간 계획

총지중수행입문서·교화지침서·스승님법문집 등



▲발간 예정을 앞두고 있는 종단관련도서들. 사진은 가제본 도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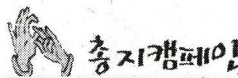
종단관련 도서들이 곧 발간될 예정이다. 법장원은 총지중에 처음 입문하는 교도들을 위하여 수행입문서를 발간할 계획을 수립, 원고집필에 들어갔다. 현재 5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이 수행입문서(『올바른 진언수행-총지중수행입문서(가제)』)에는 불교의 기초사상과 밀교수행, 총지중의 수행과 계법, 사원예절 등 다양한 내용들이 수록될 예정이다. 그리고 초심 스승들이 일선 사원에서 교화를 할때 참고할 수 있는 『포교지침서』의 발간도 계획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원로 및 중진 스승님들의 교화사례 정리와 자료수집에 들어갈 전망이다. 법장원 김충배 연구원은 "교화

사례의 정리나 지침 마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교화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일선 사원 스승님들의 귀중한 경험을 정리하고 다듬어 교화와 수행에 큰 지침서로 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작업을 통해 지방마다 다른 교화방법과 논란이 많은 불공법법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충분한 합의를 통해 하나의 통일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전국 스승님들의 설법내용을 한 데 묶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도 세워 두고 있다. 『삼악만상 그 모두가 법신불의 설법이라(가제)』라는 제목으로 발간될 이 법문집은 총지중보사와 법장원 공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외모 지상주의

어느 조사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고교생의 40%가 성형수술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가 청소년층에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8%는 이미 성형수술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수술을 받은 학생은 여학생(66%)이 남학생(32%) 보다 많았다. 또 성형수술비율은 취업이나 진학을 앞둔 2·3학년(79.2%)이 1학년(20.8%)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름다움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종의 능력이나 자본의 영역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장되면서 성형수술에 대한 고교생들의 거부감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잘못된 외모에 관한 의식은 '외모 지상주의'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가장 대표적인 매체는 TV다. 다이어트 광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더욱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TV나 영화에 나오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현재 청소년이 추구하는 외모지상주의는 심각하게 짊어져야 할 문제다.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조차 아니 이 사회 전체가 능력이나 인격 보다는 외모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다.

어느 날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 한 제자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못생긴 비구가 온다면서 모두 업신여기려 했다. 이를 본 부처님이 제자를 타일었다.

"너희들은 저 못생긴 비구를 업신여기거나 따돌리지 말라. 저 비구는 이미 모든 번뇌가 다하고 할 일을 마친 사람이다. 온갖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모든 결박에서 벗어났으며 바른 지혜로 마음의 해탈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외모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우리는 흔히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한다. 속이 어찌되었든 외모가 아름답고 그럴듯해 보이면 일단 그 사람의 인격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요즘 흔히들 머리 나쁜 것은 용서해도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쉽게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엄중한 경계를 하고 있다. 사람의 진정한 평가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인격이며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중해야 할 것은 잘생긴 외모나 말쑥한 허우대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 됨됨이다. 인격이나 교양의 향기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외모가 최우선시 되는 오늘날 사람을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죽비소리

그는 아름답다.
자기의 발에 홀로 그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
아름답다.
그 씨가 아무리 하잘 것 없어 보일 나무의 씨앗이라 하여도 열심히 자기의 발을 갈고 자기의 발을 덮을 날개를 보듬는 자

한 겨울에도 부드러운 흙을 자기의 발에 가득 앉아 있게 하는 자.

따옴으로 꿈을 적시는 자
아름답다.

-김은교의 (허무수업)중에서-

종조 멸도절 추선불사

"법신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육자대명왕진언 음마니반메움을 본존으로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태극양계의 모든 경례를 보조경전으로 하며,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고 '당상죽도'와 '색심불이'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로 사리를 구현함으로써 현재정화와 즉신성불의 운원대도를 이루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총지중의 종지로써 총지중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님의 멸도절 추선불사에 많은 교도들의 동참 바랍니다.

- ◆ 일 시 : 총지32년(2003년) 9월 8일
- ◆ 장 소 : 전국 각 사원
- ◆ 서울·경인 교구는 총지사서에서 오후 2시30분에, 지방은 각 교구별·사원별로 추선불사를 병행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2-1080~2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사설

도제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정비하자

최근 각 대기업들을 보면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하기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주기적인 재교육과 해외유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속에서 종교계도 다종교인 한국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많은 훌륭한 수행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체계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면 불교계의 주요종단들의 교육체계를 살펴보자

첫째, 조계종은 1995년 교육원을 발족하여 행자교육 및 승가교육 체계 기틀을 다져오고 있다. 특히 입산부터 행자교육원을 거쳐 사미, 사미계까지 행자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는 행자들의 교육 및 수행수준을 고안시켜 왔으며 입산 출가자의 환속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행자교육원은 5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출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거친 후 행자교육원에서 3주간 교육을 받는 등 전체적으로 6개월간의 의무교육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자교육원을 마치고 사미, 사미계(예비승)을 수지, 강원, 기초선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졸업 등 4년의 교육을 통해 비구, 비구니계를 수지해야만 스님으로 인정받으며, 2001년부터는 3급 승가고시(법랍 10년이상)에 합격해야만 교단의 중무직(주지승 혹은 상자를 둘 수 있다)에 취임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승가고시의 과목이 증가하고 있어 수행과 교법에 정통한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이다.

둘째, 천태종은 엄격한 행자생활을 거쳐야 한다. 즉 입산전 3년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입산 허락 후 행자로서 3년의 교육 등 총 6년의 교육을 받은 후 심선계와 법명을 받고 천태종 승려가 된다. 승려가 되면 강원원에 입학하여 천태수행법과 교법을 교육 받는다. 또한 천태종 승려들은 모두 1년에 두차례 특별 승려교육을 받는다.

셋째, 진각종의 경우 각 심인단의 추천과 교구장의 추천으로 준비생이 되며 준비생은 위덕대학교나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에 합당한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인정받는다. 학위를 인정받으면 진각대학의 3, 4학년이 편입하여 교육을 받아 예비승이 된다. 진각대학에서는 1, 2학년의 기본교육과 3, 4학년은 시무가 받는 전문과정이 있다. 진각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의 교화경력이 있어야 정사, 전수가 된다.

넷째, 원불교의 경우 교구가 되기 위해서는 원광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하여 4년 동안 수학하고 대학원과정 2년 과정을 수료한 후 교구로서 일선교당에서 부교무로 활동을 한 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주교무가 될 수 있으며, 모든 교무들은 중앙교육원에서 매년 2번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타종단은 종무의 최우선 과제로 교육제도를 정비하여 도제양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현재 본 종단은 시무기간 7개월이란 규정만 존재할 뿐 시무자격과 기준 및 수행정도 등 구체적인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 종무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도제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및 교육방법, 기간 등 제도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도제양성비 지급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의 지급이 아니라 전 승단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르신들의 “즐거운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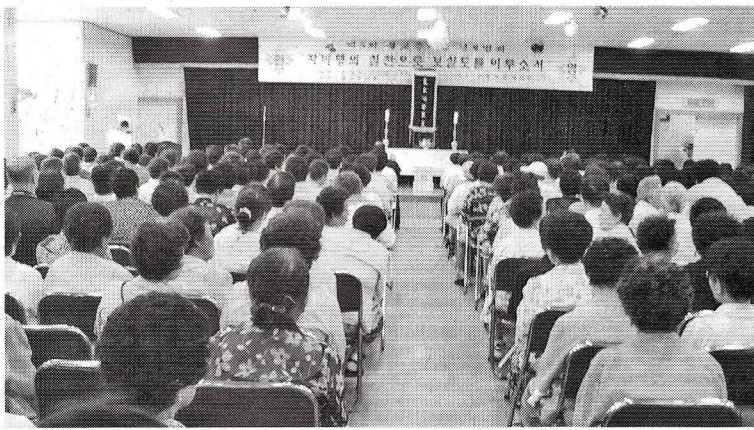
총지중 경로수련법회원만 회향

총지중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열림원에서 전국사원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열린 법회를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법회는 8월 25일 오후4시에 열림원 대강당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장기자랑, 불자가수 및 연예인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백남봉씨 사회로 어르신들의 여흥을 한껏 북돋아 모처럼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가득하였다.

법회에서 법공 통리원장은 “장경문에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 어느 것을 들을 지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하느니라. 덕이 없으면서 남의 칭찬을 듣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허물이 있어 야단을 듣는다면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다. 기뻐하면 잘못된 점을 찾아 반드시 고칠 수 있게 되고, 부끄러워하면 도를 더욱 부지런히 닦고자 할 것이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마침내 돌아와 내 몸을 해치게 되느니라. 또한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듣거든 오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면 다른 날 도리어 나의 허물을 논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분명히 알지니라. 무릇 있는 바 상이 모두 허망한 것이다. 율쁘고 욕하거나 칭찬하고 추켜준들 근심할 것이 무엇이며 기뻐할 것이 무엇이랴 라는 자경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경로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고 건강하게 만수무강하기를 기원하며, 총지중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보살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임을 알고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러한 뜻을 받들어 종단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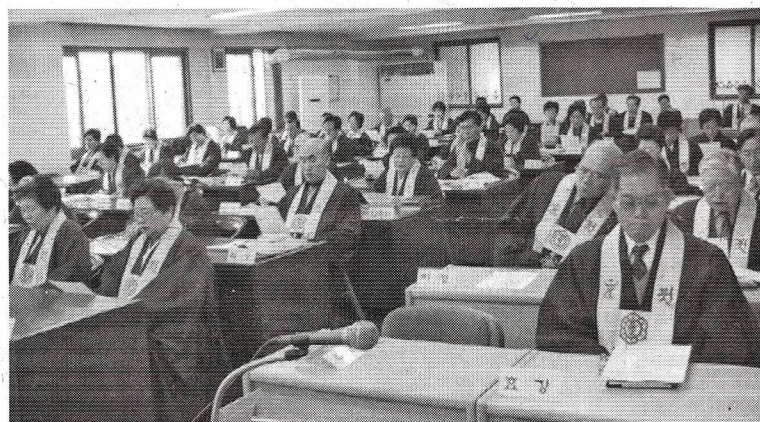
◇제5회 총지중 경로수련법회에 참가한 어르신들.

살님들은 “총지중이 종단적 차원에서 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법회를 통해 불법에 인연을 맺고 생활하고 있음에 다시한번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전국의 모든 보살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간에 진목을 도모하고 오랜만에 옛날의 도반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 감개가 무량하며, 차후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주셨으면 한다.”고 하였다.

총지중은 경로수련법회를 정기적인 행사로 규정하여 이 행사를 계속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총지중 승단총회 개최

종령 추대방법만 개정 결의



◇전국 스승님들이 종령추대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총지중(통리원장 법공)은 8월 14일 오후 2시에 지난 5월 4일 입적하고 룡정 대종사님의 후임 종령을 추대하기 위해 전국 스승님(정사, 전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리원 회의실에서 승단총회를 개최하였지만 종령추대법 법규에 대한 해석과 추대방법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종령 공백기간이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령추대가 늦춰지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종령추대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현행법대로 하되 추대방법만 개정하는 방법, 둘째, 현행법을 완전히 개정하여 추대하는 방법, 셋째, 대행체제에서 모든 법을 개정후 종령을 추대하는 방법, 넷째, 피선거권만 모아서 투표없이 단일후보로 뽑는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네가지 방안을 두고 투표에 들어가 현행법대로 하되 추대방법만 개정하여 추대하는 방안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회의에서는 지난달 대구 개천사에서 현행법대로 종령을 추대하는 방법에 의견을 결집하였고, 원의회에서는 종령추대법을 완전히 개정하는 의견에 일치하여 승단총회에서 최종 결의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관계자는 “종단의 법규상 모든 법은 종령과 종의회 의원의 발의에 의해 원의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종의회에서 최종 결의를 한 후 종법에 대한 시행안이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적합한 절차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총지중 학생수련대회를 다녀와서

7.24일, 총지중 여름 학생 수련대회를 가는 날이다. 예전에 수도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산 총지중 수련장이 아닌 경부 안동에서 한다고 하여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서울을 출발 몇 시간 후 안동에 있는 경부대학교라는 곳에 도착했다.

아이들이 도착 때에는 사뭇 다른 진지한 모습이었다. 불공을 처음 하는 친구들은 매우 어색해 하였는데 스승님의 자세한 설명과 선생님들의 지도로 모두들 금방 따라할 수 있었다. 나도 가만히 눈을 감고 음미반배음을 입으로 외었다.

저녁식사 후 강당에서 게임을 하고 취침시간이 왔다. 나랑 내 친구들도 열방 언니 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지새웠다. 자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물론 나도 밤새웠다.

7월25일, 여기에 온지 이틀째 되는 날이다. 아침불공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불공시간이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분도 진지해진다. 특히 음미반배음을 염송할 때에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침불공을 하고 나서 한지공장에 갔다. 그곳에 전신원 작품들은 정말로 예뻐다. 사계절을 한지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정말로 아름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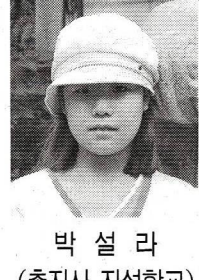
한지공장에서 나와 도자기 만드는 곳으로 출발하였다. 그곳에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무척 재미있었다. 만드는 법을 학교 미술시간에 배웠고 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만든 고려청자를 생각하며 나도 컵을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니 컵이 아니라 밥그릇이 된 것 같다. 점심은 핫 제사 밥을 먹고 기속

사로 돌아왔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 음식으로 차려진 밥상, 사실 내 취향은 아니었다. 그래도 배가 고파서 많이 먹었다. 오후에는 밖으로 나가서 탈춤을 배웠다. 약간은 우습게 생긴 탈춤을 출발 몇 시간 후 안동에 있는 경부대학교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모두가 낯설지 않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선생님의 말씀처럼 내가 한국 사람이고 탈춤은 우리 전통 문화이기 때문일 것이다.

저녁 식사 후 내가 가장 기다리던 캠프파이어가 시작되었다. 먼저 간단한 게임을 했다. 그리고 장기자랑순서가 되었다. 나는 친구들과 춤을 준비했다. 다른 조에 장기자랑이 끝나고 우리차례가 되었다 시작되었다. 준비했던 것 보다 훨씬 열심히 추었다. 마지막 날이다. 일어나자마자 불공을 드리고 아침밥을 먹었다.

그리고 안동하회마을로 갔다. TV에 가끔 나와 보곤 했는데 직접 외본 적은 처음이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모습 그대로였다. 어떤 집은 300년 전에 지은 집이라는 안내문이 있었는데 새삼 우리 조상님들의 기술에 감탄했다. 지은지 몇 년 밖에 안되는 아파트가 무너지고 또 다리가 무너지는데...

정신없이 구경을 하고 나니 오후가 훌쩍 넘어버렸다. 선생님들이 수련회의 일정이 끝났다고 하였다. 처음에 2박3일이라고 해서 길 줄 알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무척이나 짧았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짐으로 왔다. 수련회를 통해 느낀 것이 참 많은 것 같다. 우리조상님들의 훌륭한 문화를 직접 보고 또 나도 똑같이 한지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들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다시 오고 싶다.



박설라 (총지사 자성학교)

알림

- 종조별도절 추선불사가 9월 8일 전국사원에서 봉행됨
- 통리원 이상철각자님, 박상영보살님, 장남 이완형 결혼식을 8월 27일 서울 삼성동 공평호텔에서 거행함
- 전통등 및 사물놀이 감승회에 관심있는 모든 교도들의 동참 바람
- 만보사 민순보 사의 가족노래열창이 추석날 저녁 7시 MBC방송국에서 방영예정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3년 7월 21일부터 2003년 8월 25일까지

개천사	박병선	10,000	밀인사	배태임	5,000	수인사	이순자	10,000	운천사	이형란	10,000	지인사	임순옥	5,000
개천사	신정희	100,000	밀인사	신대식	10,000	수인사	최공자	10,000	지석사	배무자	20,000	총지사	김효숙	10,000
개천사	이희권	10,000	밀인사	신동의	10,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지석사	채춘자	10,000	총지사	이인성	20,000
관성사	김병석	10,000	밀인사	신동희	10,000	시범사	지성	30,000	정각사	강길순	10,000	총지사	장수복	10,000
관성사	박현숙	10,000	밀인사	안옥진	10,000	실보사	김시분	10,000	정각사	김애자	5,000	총지사	정광행	10,000
관성사	백월화	5,000	밀인사	이연수	10,000	실보사	방원순	10,000	정각사	김점남	10,000	통리원	인선	10,000
관성사	이순삼	10,000	밀인사	이재호	5,000	실보사	이순옥	10,000	정각사	김정연	20,000	혜정사	권영숙	10,000
관성사	이혜원	5,000	밀인사	이혜성	10,000	실보사	관음행	5,000	정각사	김정자	10,000	혜정사	수승원	40,000
관성사	정인순	10,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실지사	박미선	10,000	정각사	남숙자	20,000	혜정사	자성신	10,000
관성사	조정숙	10,000	밀인사	무명씨	10,000	실지사	성대성	3,000	정각사	박훈휘	10,000	혜정사	정길순	5,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백월사	박삼순	5,000	실지사	손기성	20,000	정각사	신연자	10,000	혜정사	조숙자	10,000
기로원	대관	10,000	백월사	이민자	10,000	실지사	이명환	3,000	정각사	신옥필	10,000	혜정사	해보심	10,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백월사	차노병	10,000	실지사	이숙례	6,000	정각사	이란이	20,000	흥국사	강문석	10,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법성사	노순자	20,000	실지사	이옥분	10,000	정각사	이상열	10,000	흥국사	강한빛	10,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법천사	김정숙	5,000	실지사	이희수	10,000	정각사	이수임	5,000		강순란	5,000
기로원	안효강	1,000,000	벽룡사	박덕서	5,000	실지사	장근도	20,000	정각사	이윤희	35,000		박홍렬	5,000
단음사	김경창	10,000	벽룡사	보심관	5,000	실지사	정경자	10,000	정각사	이용자	10,000		이장성	5,000
단음사	묘심해	10,000	벽룡사	제덕덕	3,000	실지사	정우석	10,000	정각사	정금순	6,000		지심행	10,000
덕화사	서영순	30,000	벽룡사	무명씨	3,000	실지사	주영채	5,000	정각사	정희연	10,000		진관사	10,000
덕화사	최의순	10,000	성화사	법공	50,000	실지사	최윤	5,000	정각사	최분순	20,000		최채호	10,000
덕화사	하순옥	5,000	성화사	우담바라	200,000	실지사	최환	5,000	정각사	최옥심	10,000		허관	10,000
만보사	김정희	15,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운천사	김부자	20,000	정각사	황영숙	10,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수인사	김진	10,000	운천사	이병조	20,000	정심사	박옥란	10,000			
밀인사	김덕배	30,000	수인사	원봉	10,000	운천사	이상용	20,000	지인사	김기백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이달의 설법문안

계행(戒行)은 자기 질서

장아환경 반니원경을 보면 “청정한 계율을 지니고 선정을 닦으며 지혜를 구하라. 청정한 계율을 지니는 사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정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되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애욕에 매이지 않으므로 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은 덕망이 높고 명예를 드날리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음란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잡힌 생각이 없어질 것이니, 이것을 일러 해탈이라 한다.

계행이 있으면 저절로 선정이 이루어지고, 선정이 이루어지면 지혜가 밝아진다. 이를테면, 흰 천에 물감을 흘려야 그 빛이 더욱 선명하게 되는 것과 같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두루 갖추면 마음이 저절로 열리어 세 상일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사탕물이 맑으면 그 밑에 모래와 돌자갈의 모양을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진리를 찾으려면 먼저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여래는 청정을 가장 즐겨 한다.”

얼마 전 한 택시 운전사가 손님이 두고 내린 현금 100만원을 보고, 돈의 유혹과 양심사이에서

이렇까 저렇까 밤새 뜬눈으로 고민하다가 마침내 양심을 택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해 듣기만 해도 흐뭇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영업을 하는 차에서 주운 것을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데, 이런 일이 신문의 기사로 다루어져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요즘 세상이 각박하고 삭막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이라 말이 쉽

이요 인과관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역의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소한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생활규범이 있어야 하고 자기 질서를 지녀야 합니다. 그런 규범과 질서가 없으면 조그마한 것에 부딪쳐도 이내 넘어지고 맙니다. 비록 물질적으

로 오게입니다.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사된 윤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을 마셔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자란 이 절 저 절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받아 지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생활규범을 지니겠다고 일단 맹세를 했으면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규범과

흔히 계율과 선정과 지혜는 누구나 마땅히 배울 것이라고 해서 삼학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여러 종파가 있지만 계·정·혜 삼학은 수도의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이 삼학은 독립된 것이 아니고 선정을 닦지 않고는 심성의 빛인 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간혹 달된 사람들이 깨치면 그만이지 술을 마시건 어디서 놀아나건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지만 그런 허황한 말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올바른 행위가 전제되지 않고는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았다면 반드시 바른 행실이 따르게 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의 진리는 허깨비도 있지 않고 오로지 청정한 행동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불교교단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것도 그 근본원인을 파악해 보면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삼학을 교리로 모셔 두기만 하고 실제로 닦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한 생활규범 없는 건전한 생활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는 받는 일보다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절 저 절에서 보살계를 몇 번 받는다. 닦지는 대로 먹고 행동하는 것을 대신인 양 착각하는 무리들마저 없지 않습니다.

(편집자 주)

청정한 계율과 선정은 지혜의 근원 올바른 행위를 통한 바른 깨달음 구현

지, 누구나 그런 경우를 당해 보면 유혹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잃어버린 자기 차의 손님이 얼마나 애타할까를 생각하고 신고한 것입니다.

도둑이란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일만이 아니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도 도둑이라고 경전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경이란 없습니다. 뿌려서 거두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돌려주고는 돌려받을 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

로는 가난하게 살았을 자기 질서를 지니고 사는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긍지와 품위가 따릅니다. 겉으로는 아쉬운 것 없이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생활에는 규범이나 자기 나름의 질서가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인간의 기품이 끝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한 집안에도 그 집안 나름의 가훈이나 가풍이 있듯이 종교에도 그 신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질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지키는 계율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도의 기본적인 생활규범은

질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습니다.

호트러지기 쉬운 마음에 안정을 가져 줄 수 있고, 마음에 안정이 이루어져야 자기 자신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오늘 이 땅의 불자들은 출가나 재가를 가릴 것 없이 계를 받을 때뿐이고 일상에서 잘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계를 지키는 것은 꼭 막힌 소승의 짓이고, 닦지는 대로 먹고 행동하는 것을 대신인 양 착각하는 무리들마저 없지 않습니다.

생활속의 밀교

금강합장을 통해 공경심과 하심의 실천을...

지난 호에서 금강정좌(金剛正坐)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번 호에서는 종단의 불사에게 가운데 세 번째 내용인 '금강합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합장은 상대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은 나타내는 인도의 인사법 가운데 하나이다. 불교에서는 중요한 예배의식의 하나로 일심(一心)과 예경(禮敬)·공경(恭敬)을 의미한다. 그래서 합장은 바로 행자 자신이 아상(我相)과 교만심을 버리는 수행이요, 자기자신을 함없이 낮추는 하심(下心)의 첫 공부이기도 하다. 『관음의소(觀音義疏)』상(上)에서는 합장을 '두 손을 하

자. 밀교경전인 『금강정유가중략출염승경(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 권제1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왼손과 오른손을 견고하게 결하고 나서 모든 손가락을 교차한다. 이것을 금강합장이라 한다'고 하였다. 위 경전의 권제3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손을 합장하여 손가락 첫째마디를 서로 교차한다. 이것을 금강합장이라 한다'고 하였다.

밀교에서 합장은 정(定)과 혜(慧)의 상응(相應), 즉 부처와 중생의 합일(合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그 공덕이 광대무량하다고 보고 있다. 또 왼손은 중생세계요, 오른손은 부처의 세계로서 두 손의 합장을 통해 중생과 부처가 하나됨(합일(合一)·상응(相應)·가치(加持))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중생과 부처가 불이일여(不二一如)하여

합장은 하심과 교만을 버리고 부처와 중생의 합일을 이루는 것

나로 하는 것은 감히 산란하지 않음을 포하는 것'이라 하였다.

합장은 일반적으로 두 손바닥을 마주 보게하여 합(合)하는 것으로 밀교에서는 이를 '금강합장(金剛合掌)'이라 하고, 현교에서는 '연화합장(蓮華合掌)' 또는 '견실심합장(堅實心合掌)'이라 한다.

금강합장은 합장차수(合掌差手)라 하여 양 손가락의 사이를 서로 교차하여 합하는 것이고, 연화합장은 양 손가락을 서로 맞대어 붙이는 것을 말한다.

금강합장의 근거를 경전에서 살펴보

범성불이(凡聖不二)함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금강합장을 일체공양최승출생인, 일체불심삼매야인, 예배인이라 한다. 이 열 손가락은 십바라밀(十波羅蜜)과 십법계(十法界)를 의미하며, 이 인(印)을 결하여서 십바라밀(十波羅蜜)을 원만히 하고 십자재(十自在)를 얻어서 복(福)과 지혜(智慧)의 공덕을 성취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진언행자들은 금강합장의 뜻을 한번 정도 깊이 되새기며 염송에 들어갈 일이다.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수행은 진전된다.

(법경 / 법장원 연구원)

지상설법



문천사 무공 정사

“배우는 사람이야,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 만나기 또한 어려운 일이다. 이 몸을 금생에 건지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건질 것인가?”

그대들, 참선을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모든 것을 놓아 버려라. 무엇을 놓아 버릴 것인가 하면 이 몸과 마음을 놓아 버리고 무량겁으로 익혀온 온갖 업식을 놓아 버려라. 그리고 항상 자기 발부리를 살피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도리이고? 하고 곱곰이 추궁해 보아라 곱곰없이 추궁해 나아가면 문득 마음 빛이 환해져서 사방세계를 두루 비추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에 얻

음이고 손에 잡힐이라고 할 수 있다. 능히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을 만들고 강물을 휘저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소식이나, 이 어찌 평생 윤회한 일이 아니겠는가?

부디 책 속의 글귀를 가지고 선을 찾고 도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 선과 도는 결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실사 팔만대장경과 제자백가를 죄다 읽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가로운 빈 말이나, 죽음에 당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위의 인용문은 말이나 문자에만 집착한 나머지 실지 수행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을 빗대어 한 말씀입니다.

선종의 사서인 “오동회원”에는 사심선사의 행적이 실려 있습니다. 그는 여러 곳을 행각하다가 황룡산의 회당 조심선사를 찾아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습니다. 말이 많은 젊은이를 보고 조심선사는 다음과 같이 타이릅니다.

“아무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어찌 배부를 수 있겠는가?” 사심선사는 공부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자 하루는 조심선사를 찾아가 가르

침을 간절히 청합니다.

“저는 이제 활도 부러지고 화살도 다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재비를 베푸시어 안락처를 가르쳐 주십시오.”

조심선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먼지 하나가 하늘을 가리고 티끌 하나가 땅을 덮는다. 안락처는 그대

랑하였습니다.

“천하 사람들은 모두 참구를 얻었지만 저는 깨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심선사는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부처를 선발하는데 장원으로 뽑혔으니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그

마른 지식을 가지고 선을 삼거나 진리를 삼지 말고 당부한 것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도 절박한 생사 앞에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고 삶의 과정에서 깨달은 지혜를 통해 삶을 운택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전 사람들에

지혜의 밭을 개간하자

허다한 분별심과 무량겁의 업장을 버려라 수많은 이론보다는 한번의 실천이 중요

의 허다한 분별심을 가장 깨리는 것이니, 무량겁을 두고 내려온 그 마음을 그냥 죽여 없애라.”

이때부터 사심선사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간절해져 밤낮으로 열심히 정진하였습니다. 하루는 선실에서 좌선중이었는데 뜰을 지나가는 사람의 지팡이 끄는 소리에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희에 넘쳐 신을 벗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조심선사의 방에 뛰어 들어가 자

는 이때부터 스스로 이름 하기를 마음이 죽은 사람 사심수라 하고, 거처하는 방을 사심실이라 하였습니다.

참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랜 세월을 두고 잘못 익혀온 그릇된 생활습관도 다 비워버려라”고 말 한 것은 자신의 모든 사고와 습관은 일찍이 자신만의 동굴 속에서 답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 속의 메

비해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지라도 허다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큼 현실 속에서 활용하며 살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달 표면이 패이고 솟은 것까지 알고 있으면서 막상 가장 가까운 자기 내면의 존재와 실체에 대한 자기정찰이 부족하여 여러

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쩔 바를 모르고 허둥대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해와 인식을 통해서 삶을 개선하고 심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덕선전 선사는 젊어서 금강경에 통달하여 그의 성인 주씨를 들어 주공금이라고 할 만큼 금강경에는 제일인자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골 딱정충 할머니의 물음에 답을 못하고 쫓달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자로 된 금강경에는 통달했는지 모르지만 문자 밖의 일과 소식에는 감잡했던 것입니다. 지적인 이해에는 앞섰지만 종교적인 체험에는 결여되었던 것입니다.

지적인 이해는 지식의 영역이고 머리로 하는 분별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체험은 지혜의 영역이고 가슴에서 손발로 이어지는 삶의 세계입니다. 지적인 이해에는 그 사선이 항상 외부로 향하지만 종교적인 체험에는 눈과 귀와 그 밖의 모든 감각이 내면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음 밖에서 찾지 않고 마음 안에 간직된 것을 깨내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지식이 한 때 머물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면 지혜는 온갖 씨앗을 움트게 하는 대지입니다.

제1회 전통등 강습 및 사물놀이 강습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 시 : 10월부터 3개월간
장 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참가비 : 무료

(강습내용)

1. 전통등 강습

대 상 : 0명 (총지종교도 누구나)
교육일자 : 주중 야간 또는 주말
교육장소 : 통리원 2층 반야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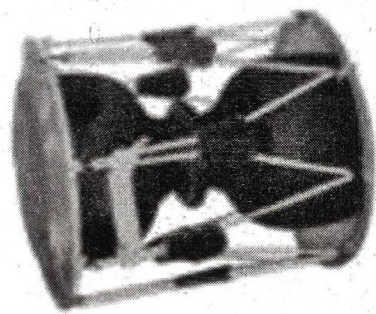
2. 사물놀이 강습

대 상 : 00명 (총지종교도 누구나)
교육일자 : 주중 야간 또는 주말
교육장소 : 통리원 무용실
※10명이하 신청시 강습은 취소됩니다.

3. 접수 및 문의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 2동 776-2 불교총지종 통리원
전 화 : (02) 552-1080~3
전 송 : (02) 552-1082
이메일 : panth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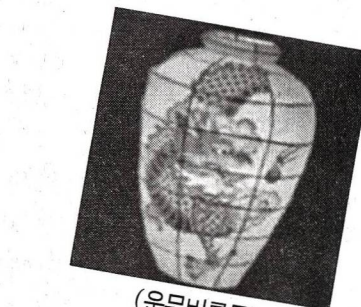
4. 접수마감 : 9월 25일까지



(사물놀이 - 장구)



(사물놀이 공연 2)



(운무비룡등)



(죽구등)

제1회 전통등 강습 및 사물놀이 강습 신청서

접수번호 :

성 명 :
불 명 :
소속사원 :
성 별 :
현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e-mail :

본인은 (전통등 강습, 사물놀이 강습) 수강을 신청합니다.

• 위 강습내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하나에 O표 하세요 •

총기 32년 월 일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귀하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⑦

태장계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서방(西方)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

지난 호에서는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오불(五佛) 가운데 남방의 개부화왕여래(開敷華王如來)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서방에 자리잡고 있는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편집자주>

태장계만다라의 서쪽, 그러니까 행자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중앙 대일여래의 아랫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래가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이다. 이를 무량수(無量壽) 또는 무량수불(無量壽佛), 무량광불(無量光佛), 아미타불이라고도 한다. 무량수여래는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부처님이다. 이 무량수는 산스크리트어 Amitayus라 하는데 밀교의 태장계 오불(五佛)에서는 무량수여래라 하고 금강계 오불에서는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대일경소'에서 이 무량수여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생(衆生)이 무진(無盡)이므로 여래의 대비(大悲)·방편(方便)



이다. 다시말해서 객체적 대상을 충분히 관찰하여 바라는 대로 자유자재(自由自在)하는 지혜를 말한다. 그래서 '무량수여래'는 바로 깨달음, 청정지혜를 나타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래의 밀호(密號)를 청정금강(淸淨金剛)이라 한다. 무량수여래의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고, 앉아 있는 좌대는 연화(蓮華)이다. 이 여래를 상징하는 진언 종자(種子字)는 암(am)자이고 삼매야형(三昧耶形)은 활짝 핀 연꽃(開敷蓮華)이다. 암(am)자는 아(a)자에서 파생된 종자로서 대일여래의 '청정지혜'의 덕성(德性)을 상징한다. 존형(尊形)은 백적색(白赤色)으로써 통견가사(通肩袈裟)를 입고 아미타정인(阿彌陀定印)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미타정인은 양손의 네 손가락을 펴서 한쪽 손을 다른 쪽 손 위에 겹쳐 놓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둥글게 하여 서로 맞닿고 있는 수인(手印)이다. 이를 선정인(禪定印)이라고도 한다. 명상에 들어가는 사유(思惟)의 상(相)이기 때문에 선정인이

무량수여래는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부처님 세계 대일여래의 청정지혜의 덕성(德性)을 상징

도 무진(無盡)이다. 그 때문에 무량수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깨달음의 과실(果實)을 향수하고, 이것을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상징한다. 즉 모든 사람들의 고뇌와 의혹을 풀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여래이다. 이 여래가 서방(西方)에 위치하는 것은 '아미타여래'는 지금도 여전히 서방극락정토에서 설법하고 계신다는 '무량수경'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이 무량수여래는 서방정토에 계시는 영원무량한 부처님으로서 수행을 통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이룬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여래이다. 이 여래는 망식(妄識)의 전식득지(轉識得智)로서 묘관찰지(妙觀察智)를 나타낸다. 묘관찰지(妙觀察智)는 현실세계에서 모든 것이 각각의 개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지혜

다. 선정은 좌선(坐禪)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집중·통일 상태를 이루어 일체번뇌를 가라 앉히는 수행이다. 육바리밀행의 가르침과 같이 선정을 이루었을 때 바로 지혜가 일어나게 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선정을 닦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선정은 정진수행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이 무량수여래의 지혜의 성덕(性德)을 얻기 위해서는 지난호에서 설명하였던 비와 같이 개부화왕여래의 정진수행력이 요구된다. 무량수여래의 진언은 '나마 사만타 부타남 삼사 사바하'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삼 사하 사바하'라는 뜻이다. <자료정리 법장원>

한보살의 아름다운 세상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한반도의 정세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북핵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6자회담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6자회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전쟁위협으로 치닫던 한반도가 6자회담을 통해 대화와 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견해와 미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6자회담은 본질적으로 현재의 한반도 위기 상황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전쟁의 위협을 크게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

이러한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먼저 우리 가족은 '만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해 보았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에게 "너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더니 "말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전쟁을 말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했더니, 아이는 "갑옷 입고 말리겠다"고 했다. 우리는 노약자와 어린이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은 피난을 보내고 우리 내외는 아이 말처럼 전쟁을 막는 일을 하자고 했다.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이 카필라성을 침공할 때 피약탈 아래 앉아 전쟁을 멈추게 한 것처럼...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들다 죽으면 아이들이 고아가 되니까 하나만 가라고 해서, 남편이 가고 내가 아이들과 부모님을 보살피기로 하겠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숙원

는 전쟁의 원인이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8·15 광복절에는 한 쪽에서는 반미를 외치고 한쪽에서는 반김정일을 외치는 집회를 가졌다. 우리는 지난 시절 극심한 좌우 대립을 겪었고, 그 시기에 중도파들은 양측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는 뼈아픈 과거의 기억을 상기하여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견해를 갖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 민족의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우리를 강조하고 통일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하나로 모아질 때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지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을 때는 융합하기 힘든 것이 국민적인 정서인 듯 하다. 그러나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조금은 다르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익숙한 그들은 가족이나 민족 등에 얽매지 않은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며 그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전쟁이 났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의 원인은 미국의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공격도 가능하다고 하는 오만함과 북한의 핵카드를 통한 버랑 끝 외교의 위험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숙원이긴 하지만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반대하며,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우리는 한미 공조 못지않게 남북 공조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부시정권이건 김정일 정권이건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두와 대화하여야 하며,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우리나라의 역사는 물론 세계 평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엄중함에 전율이 느껴진다. <한주영/불교연구개발원 연구과장>

이달의 명상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언제나 겸허하고, 제 잘난 것을 살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아도 향기가 저절로 퍼오르고 언제나 만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리석으면서도 배우지 않는 자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어리석으면 배워 익혀 지혜롭게 만들어야 하고, 어둠 속에 휩싸여 있으면 같고 닦아 빛을 발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만과 자존심으로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배우지 않고 닦지 않는 까닭이 바로 교만하기 때문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잘라서 배우지 않든, 비슷하다고 해서 닦지 않든, 열등의식에 휩싸여 닦지 않든 모두가 교만입니다. 배움의 자세는 속이는 데서, 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닦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결국에 자기가 손해볼 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깨우쳐가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를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배움의 비결은 제 마음을 여는 데 있으며, 제 마음을 열 때 도는 저절로 찾아드는 법입니다. 특히 마음이 어두운 사람일수록 마음의 문을 열어 부지런히 도를 닦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를 닦으면 마음이 공해지고, 공해지면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빛은 밖으로까지 뻗어 나와, 그 빛을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편집자 주>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 후원금 수입 보고서

기간 : 2003년 4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1. 최운석 200,000	28. 김성대 40,000	백설기 1Box
2. 조계익 10,000	29. 황정원 20,000	
3. 박순희 20,000	30. 이순자 10,000	환타 2Box
4. 심영오 40,000	31. 윤용우 100,000	과자 2Box
5. 이인복 80,000	32. 손태홍 100,000	사탕 1Box
6. 김영숙 40,000	33. 이정숙 20,000	비누 및 생활용품 1Box
7. 윤창기 80,000	34. 안철부 30,000	4. 서천석 떡 1말
8. 조주열 200,000	35. 고영길 150,000	5. (주) 텍스상사
9. 이관호 40,000	36. 박기례 20,000	아동양말 300켤레
10. 손나립 40,000	37. 손연수 10,000	6. 삼성SDS
11. 반창길 30,000	38. 햇빛사랑	참외 5Box
12. 조창식 40,000	(롯데백화점 봉사단)	
13. 안우진 10,000	39. 오유진 5,000	7. 이랜드 사회복지재단
14. 김중성 80,000	40. 오상민 5,000	T-셔츠 30벌
15. 박대규 40,000	41. 김정숙 100,000	
16. 장춘호 70,000	42. 조경봉 50,000	8. 롯데백화점 봉사단
17. 이영섭 20,000	합계 2,340,000원	(햇빛사랑)
18. 최창열 20,000		떡 6백
19. 최병운 20,000		
20. 박경란 40,000	후원물품 수입 및	9. 최수빈
21. 이태덕 40,000	사용결과 보고서	쌀 2가마
22. 김 옥 30,000		북어 11마리
23. 조현명 40,000	1. 미고베이커리	과자 및 사탕 2Box
24. 고영덕 40,000	빵 14봉지	
25. 장훈길 40,000	2. 윤명남	10. 총지사
26. 박 선 40,000	인절미 1Box,	쌀(20kg) 4포
27. 추광엽 30,000	수수팥떡 1백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 후원을 위하여

"철없는 시절이 덧없이 지나가고 철들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자 하니 이미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이다." 이웃 노인도 나의 부모요, 이웃가족도 곧 나의 가족임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다. 효도하는 길은 무수히 많지만, 그 많은 자선단체 중에서 효행의 근본 도리를 실천으로 옮긴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가 우리 이웃에 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힘없고 병들어 자식에게 버림 받은 늙은이에게 밥 한끼 대접하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도 좋은 일이지만, 죽음을 앞에 둔 부모님에게 편안한 여생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젊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하여 한 마리 고기를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을 전개하여, 어렵고 힘든 노인들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복지사업은 부자가 일시적으로 큰 돈을 기부하여 행할 수도 있으나, 심시일반으로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펼치는 나눔의 사업이 더 보람 있고, 기쁨은 크리라 생각합니다. 1구좌 매월 1만원씩 자기통장에서 자동이체시켜 1구좌가 1백구좌가 되고, 1천구좌가 1만구좌가 될 때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를 기점으로 하여 노령층에게 희망을 주고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겪고 있는 가족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당연히 실행할 것이며, 참다운 노인복지사업은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모두가 동참합시다. 1구좌 1만원을 자동이체하여 빠른 기간내에 1천구좌를 만듭시다. ■ 계좌번호 : 우리은행 : 122-138021-13-202 예 금 주 :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www.yssc.or.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60-3 전화 : 02)564-9294 전송 : 02)558-8772

충지논단

실천공부 ③

본 글은 조조 원정 성사께서 서 적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았던 조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기독교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교(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아우르고 있는 조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졌다. 진각님께서 욕망이 가득하게 찬 물질세계에서는 본심(本心)이 없음을 애민히 생각하고 시대와 기류에 따라서 체계를 달리 세우게 되니 팔만 사천 방편 가운데 허망한 이때를 미리 알고시고 본심진언을 주창하여 두게 된 것이다.

본심진언은 팔만장경 가운데 아미타불 본심 관세음보살본심 둘 뿐이다. 여성은 관세음보살본심진언을 염송하고 남성은 아미타불본심진언을 염송하는데 부지불식간에 각각 이성적(理性的) 본심(本心) 동력(動力)이 굳어져서 신앙의 근본이 되자라는 동시에 허망과 번거가 사라지게 된다.

자유세계는 과학이 종교를 무시할 수 없고 종교가 과학을 무시할 수 없는 상대원리를 가져서 종교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원(二元)이 되느니라. 그러나 진기는 음극과 양극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불이 곧 꺼지는 까닭으로 이원(二元)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되는데 물질문명을 건설하는 자유세계에서도 과학에 종교가 없으면 선(善)이 되기 어려우므로 물질이 발전함에 따라 혼란을 많이 일으킬 따름이다. 과학이 종교와 상대해서 발전하지 않으면 종교의 자유발전은 더딜 뿐이다. 믿고 깨닫게만 되면 전기와 같이 쉽게 꺼지거나 하지 않는다.

서양교(西洋教)는 옳은 것을 세웠고 동양교(東洋教)는 지혜를 열게 된다. 서양에는 옳은 것을 세우는 교(教)가 주관(主觀)되고 지혜를 여는 교(教)는 객관(客觀)이 될 것이며, 동양에서는 지혜를 여는 교(教)가 주관(主觀)되고 옳은 것을 세우는 교는 객관이 될 것이다. 한 나라에서라도 옳은 것을 세우는 교가 주관되고 지혜를 여는 교는 객관이 될 것이며 반대로 지혜를 여는 교가 주관되고 옳은

것을 세우는 교는 객관이 되어지게 것은 진각님께서 그 지령(地靈)에 따르고 성질(性質)에 맞추어서 이원(二元)으로 마련한 까닭이다. 옳은 것은 지혜를 가미해서 완전한 공의(公義)가 되고, 지혜는 옳은 것을 영항해서 완전한 공도(公道)가

이며 크고 성스럽고 삼세에 변함이 없는 것을 법계 진각님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적은 것은 있는 줄 알고 숭상하여 왔고 절대적이고 큰 것은 천지만 숭상하게 되고 간접으로 증거해서 받게 되는 백성들은 직접 숭상할 수 없었던 차

크게 되는 사상을 열어왔고 재가불교에서는 살아서 현재에 잘 되는 사상을 열고 있다. 법계 진각님은 절대적 큰 것임으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쉽게 숭배하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진각님과 일체로 되어 있는 심인(心印)이 세상 사람은 다 자기에게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고통을 빠져 있는 것을 애민하게 생각하고 삼신이불(三身理佛)이 출세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법계 진각님을 믿고 육행(六行)을 실천하여 인과(因果)를 내증하는 데는 예(禮)를 배우고 범절이 있어서 향도에 출입하게된 남편을 만나 잘 살게 되었고 현재는 진각님의 교를 믿고 육행을 실천하여 심인을 깨닫고 인과를 내증한 지혜있는 부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되느니라. 범절은 밝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신도덕(修身道徳)은 남자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삼강오륜(三綱五倫)과 인의예지(仁義禮智)와 천리(天理)인 삼재(三才)를 배우고 읽고 닦고 행하는 근본 지식은 남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삼강(三綱)이나 오륜(五倫)이나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수행하는 데는 남자가 근본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요 양심

성덕(性徳)을 부인에게 입히는 것이 마치 태양의 덕화(德火)가 초목에 미치어서 변화한 여름이 되어지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남자가 배워 익히고 가져서 행하는 데 부인은 규중에 가만히 앉아서 수법을 받고 덕화에 따르게 될 따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 종교는 부녀가 먼저 교를 믿고 자성(自性)을 깨쳐서 말없는 가운데서 각자(覺者·남편)가 반듯해지고 아내의 선악(善惡)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것을 부녀가 밝게 받아들이고 내증한 연후에 남편도 따라서 교를 믿고 이성을 얻어지므로 아내는 무인 중에 신묘한 자성으로 반경계 되고 각자는 명철한 이성으로 화도(化度)가 되는 것이다.

도덕은 높고 낮은 산과 같이 상하준비 계급으로 된 예를 세워서 살기 위한 것인 까닭이나 종교는 하나로서 이원 다원 평등으로 된 지혜를 열어서 살기 위한 까닭이다. 민주국가가 민의(民意)로써 입법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식의 의사를 세워주는 것이나 남편이 부인의 선악을 반영하는 것이 모두다 법(法)·보(報)·화(化)의 삼신(三身) 이불(理佛)의 평등한 법칙에 나온 것이다.

밝은 낮에 잠자는 이는 가난할지나 이 우주에는 태양이 새로 밝아지고 인간에는 불법(佛法)이 다시 돌아오는 이때에 어찌 과거 어두운 시대에 하였던 사상적 행사를 주장하고 있으리요. 밝은 낮에 한 잠자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다. 태양과 같은 평등한 성품으로서 법계 진각문을 널리 열어 두었으니 어리석은 집착을 버리고 다 진각님의 광명한 보살화로 돌아올 것이다. 종자도 그 법에 맞는 종자라야 잘되고 수입이 많을 것이다. 종교도 개인적 성격에 맞는 종교도 있고 그 나라 민족의 대다수 성격에 맞는 종교도 있는 줄 알아야 하니 그러므로 교화도 그 시대와 주의를 고유사상에 부합되지 않으면 화민섭속(化民攝俗)되기 어려운 것이다.

(자료제공 충학연구실)



종교는 하나로서 이원 다원 평등으로 된 지혜를 구현

되느니라. 작은 것을 숭상하면 사상이 적어져서 적은 인물을 낳게 되고, 큰 것을 숭상하면 사상이 커져서 큰 인물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각과 귀신을 분별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내려다 볼 수 있게 땅에 흩어져서 개별적 이력을 가지고 있는 신들을 총칭하여서 귀신이라 하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천지 세계를 형상없는 하나로 계시되 절대적

별적 예로서 막혀왔던 것을 백년 가까운 앞에서부터 법계 진각님께서 우리에게도 평등적 주권을 부여했으므로 사상적 큰 문을 개방하고 하나의 진각님을 직접 교제(交際)할 수 있는 교문(敎門)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백년 동안 구속되었던 예에 습관되어 스스로 귀신에 매이고 풀지 못하여서 지금까지 진각문(眞覺門)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다 유감으로 생각될 것이다. 재래불교에서는 죽어서 미래에

은 안을 주장하게 되므로 성품을 깨닫는 종교는 부녀가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법계 진각님을 믿고 육행(六行)을 실천하여 심인을 깨닫고 인과를 내증하는 근본 지혜는 여성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사십팔원(四十八願)이나 십선업(十善業)이나 육행(六行)을 원하고 믿고 깨달아서 행하는 데는 부녀가 근본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덕은 남자만 배우고 익히고 행해서 예(禮)로 세워진

[지혜]

과학이 발전할수록 물질은 발전하고 물질이 발전할수록 세상인심은 곧 따라서 허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물질이 점점 발전하는 세상은 번뇌망상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하여야 과학문명은 발전하고 물질은 풍요하면서 진실한 세계가 되어 질가 하는 연구를 하여 볼 것이다. 저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있는 전기불을 보라. 양극 음극 하나를 없애도 광명은 곧 없어지나 아마 전기(電氣)도 이원(二元)으로 합성되어 광명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조선화원장의 충지 동의 보감

소갈증 (당뇨병)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이 소갈의 범주에 속합니다. 소갈이란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도 많이 먹지만 몸은 점점 아취며 소변양이 많아지는 등의 증상이 추가되는 질환입니다. 소갈증의 일반증상에 대하여 동의보감에 자세하게 기술되어있으며 그중에서도 당뇨에 관해 써져 있는 것을 보면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만 곧 공복이 된다는 것, 목이 아취고 갈증이 있으며 자주 소변을 보고 그 맛이 단 것 등을 중요한 증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갈증 발생과 관련하여 중시하는 것은 폐, 비, 신의 세 장기의 기능 장애와 열에 의한 진액과 혈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진액이나 혈 부족을 일으키는 요소로 술을 과음하는 것, 단맛이나, 짠맛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것, 몹시

놀라거나 흥분하는 등 심한 정신적 자극, 신장(성호르몬)의 과도한 소모, 외감, 지방축적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진액이나 혈을 손상하여 결국 음허조열을 야기하여 소갈증을 발생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증후는 상소,중소,하소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많이 먹고 마시며, 많은 소변에 뇨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초기에 폐열과 위열 증후가 기본인 실증이 출현하고 병이 점점 깊어지면 신허증상이 추가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상소의 주증은 구갈이 심하고 다음에 혀는 붉고 때로는 갈라집니다. 대변에는 변화가 없으면 배소 횡수가 잦으며 맥은 크고 빠릅니다. 이것은 폐와 위에 열이 심한 증상입니다.

중소의 증상은 음식을 많이 섭취해도 곧바로 배가 고프며 몸은 점점 마릅니다. 입은 마르지만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심하지 않습니다. 소변이 잦으며 뇨당이 나옵니다. 하소의 증상은 마음과 가슴이 답답합니다. 눈은 혼탁하여 양이 많고 콧물이 거칠거칠하니 운택함이 없습니다. 안색은 거무칙칙하고 체중이 몹시 감소하며, 혀는 붉고 맥은 침체하면서 빨라집니다. 먹어도 곧바로 배가 고프고 양명위열이 심한 결과이고 몸이 점점 마르는 것은 비위와 신이 손상되어 정과 혈이 부족해졌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뇨당이 많고 당이 나오는 것은 비와 신의 기능이 몹시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소와 하소는 당뇨병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단계로 위열을 억제하고 위와 신음을 보하는 방향으로 치료합니다. 소갈증은 증상, 경과, 병인이 당뇨병과 거의 일치하지만 당뇨병이 아닌 일반적 목마름 증상도 혼재시키고 있

습니다. 목이 마르고 뇨량이 많으면 음식물을 많이 먹지만 체중이 줄고 전신 권태감, 화농성 염증, 소양감, 시력 장애와 같은 증상이 있는 전형적 예에서는 당뇨병 진단이 어렵지 않지만 비전형적 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뇨시 거품이 많이 섞이는 사람, 잘 낫지 않는 상처를 비롯한 피부화농성 질환을 갖고있는 사람들은 뇨검사를 하여 뇨당과 뇨의 비중을 측정하여 당뇨병을 확정지어야 할것입니다. 당뇨병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 및 휴식을 인배하는 일입니다. 약물치료의 방향은 부하를 받고 있는 랑게르한스섬을 보호하고 물질대사장애를 개선하여 합병증을 예방하여 운동능력을 회복시킴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한약제는 유기체의 기능을 높이고 과활당을 정상 혈당으로 되돌려 자가증상을 없애는 방향에서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좋은점을 갖고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비롯한 다른 약제와 잘 배합하면 보다 좋은 치료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성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Advertisement for '여성美' (Women's Beauty) clinic, featuring a photo of the director and text about various treatments.

여성美 한의원

- Advertisement listing various medical services and treatments offered by the clinic, including gynecological and general medicine.

Advertisement for the clinic's location, including a map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medical equipment and systems, including images of various de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rovider.

풍경소리

무문

가진 것이 없어도 나올 수 있다

무슨 소리든
만 번을 반복하면
그것이 진언(眞言)이 되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미치겠어"
"미워 죽겠어"
"지긋지긋해"
아무 생각없이 반복하는 그 소리들이
당신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맑고 향기로운 언어를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곧 주문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장용철(시인)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 여쭙었습
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
다."
"그것은 네가 남에게 배필지 않았기 때문이니
라."
"저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도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
"부드럽고 편안한 미소와 눈빛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대할 수 있으며
예의 바르고 친절한 몸가짐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 줄 수도 있다."
- 집보장경 중에서

강을 건너는 그대에게

강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토끼는 물위를 그냥 헤엄쳐 갑니다.
말은 발이 닿는 돌 마는 돌 건너갑니다.
코끼리는 바닥에 발을 확실하게 디디면서 건너갑니다.

갑자기 물살이 세차집니다.
토끼는 금방 떠내려가고
말은 허둥대다가 힘이 빠졌습니다.
코끼리만 무사하게 강을 건넜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강을 어떻게 건너고 계십니
까?
- 박경준(동국대 교수)

세상을 맑게 하는 마음

한 장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우주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뭇잎은 가지를 의지하고 있으며
가지는 뿌리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대지를 의지하고 있으며
뿌리는 하늘과 땅을 순환하여
땅속을 흐르는 물을 흡수합니다.

한 사람의 깨끗한 마음은
징검다리처럼
이 모든 것을 건너고 건너서
세상을 맑게 합니다.

- 문윤정(수필가)

나도 한마디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선하게 살
아라,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매일 말을 합니다. 그러
나 진정 그런 말을 하는 자신들은 착하고 선하게 살
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절에서는 스님들이 수 많은 대중들을 앞에 놓
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여 의
기양양하게 마치 성자처럼 부처님처럼 살라고 이야
기 합니다. 그러나 가끔 매스컴을 보면 교회목사들
이 사기행각을 하고, 절에 스님들은 자기 밥그릇 쟁
기기에 여념이 없는 성직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반
면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봉사하는 성직자들은 말을 함부로 행하지
않고 몸소 실천을 행합니다.
불교경전을 보면 "말을 함에 상대방을 먼저 생각
하고 양심에 거리가 없이 행하라"는 구절이 나오
습니다. 항상 남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상
황을 먼저 헤아리며 말을 하고 실천을 행하라는 내용
일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선한 행동을 행하라"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선한 행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가? 나
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불편을 드
리지는 않았는가? 나의 말과 행동으로 혹시 상대방

이 상처를 입지 않았는가?
이제 오곡이 풍성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
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늘한 가을 바람을 마주하
며 노랗게 물든 곡식들을 바라보며 높고 푸른 하늘
을 쳐다보며 "조용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
이 살고 있는가?" 부처님 앞에 앉아 땀땀하게 살고
있는가? 하고 생각할 때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김 민 정)

나도 한마디는 총지중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중보, 총지
중 종단에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중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지중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52- 1080 팩스 : 02)552-1082
이메일 : kylyja@hanmail.net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고 ~반야심경편 제 21화~
글:그림/정수일

같이 가요, 원정대성사님.
공.
공.
하하.. 그렇게 겨울에 쓸 기름을 왜 벌써 사세요.
좀 쉬었다 갈까요? 아이고-편하다.
책, 좀 들어주지 않고..
어-바람 시원하다.
어? 호수가 많이 말랐군.
뭐가 이상해, 임마! 남 영역표시하는데.
모든 것이 "부증불감"이라면 호수의 물이나 기름통의 기름이 왜 줄어들지요?
호수-!
거 참 이상하네.
공(존재를 초월한 존재)을 지구상의 물이라고 해볼까요? 바다, 강, 호수등의 물이 계속 증발하기만 한다면 바짝 말라버려야 겠지요.
수분이 계속 증발 한다면 나도... 혁!
다행하게도 증발한 수분은 일정량이 대기 중에 포화상태가 되면 비가 되어 다시 땅이나 바다로 되돌아오지요.
큰 호수라도 강아지 여러마리가 계속 먹는다면 바닥이 날거고 강아지 역시 저렇게 되고 말겠지요?
공응-!
기어코 꼬투리를
그러므로 "공"의 차원에서 보는 모든 존재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부증불감"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별뿔뿔이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의 몸 무게는 늘어나는데...
하지만..
정수일:octagonp@hanmir.com

불교방송 자비의전화 신형상담사례 300선
신국판 344쪽/값 10,000원
초판 22쇄 발행

보람찬 하루를 위한 불교방송 5분 신형에세이
신국판 399쪽/값 10,000원
초판 3쇄 발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해주는 서른 다섯 스님의 법문
신국판 336쪽/값 10,000원
초판 5쇄 발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해주는 서른 다섯 스님의 법문
신국판 336쪽/값 10,000원
초판 2쇄 발행

www.bbsfm.co.kr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예정)

BBS 불교방송
보급처 :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02)706-3502~5

범 불교적 환경보호운동

북한산 통과 · 종무실 통폐합 반대



불교계는 8월 21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불교 종단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산 관통도로와 종무실 통폐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식 기도회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성명서에서 "자연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며 자연이 살아있을 때 인간이 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산업화, 공업화로 인해 자연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교계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문화관광부가 종무실을 통폐합함으로써 종교적 역할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적 역할의 증가를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계종 및 불교 종단들은 국회의원 불자연합인 연등회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불교계의 환경보호 운동과 불교계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한국 불교 종단협의회는 환경연합회와 더불어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종단별로 조계사 앞에서 단식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정산과 금정산 관통반대를 주장하며 지을스님을 위시하여 부산지역 스님들이 단식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라 진행되었다.

조계종은 29일 상량식을 가진 뒤 오는 10월말쯤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완공할 계획이다. 지상 4층, 지하 4층, 연면적 5천여평 규모의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불교 박물관과 공예관, 문화재 연구소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한편 조계종은 연말까지 흥보산 성역화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모연을 실시한다.

비구니회관 개관

본격적인 교육, 포교, 복지 사업

전국비구니회관이 지난 8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등 사부대중 1,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관을 하였다.

전국 비구니회관은 강남구 수서동에 건평 2,500평,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800명 수용가능한 법당과 교육관, 불교 문화실, 도서관, 12개의 선방을 갖추고 있다.

비구니 회관은 80년부터 비구니 스님들이 땅 한평사기 운동으로 시작한 후 98년 착공식을 하여 비구니스님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성취하게 되었다.

이번 비구니 회관 개관으로 여성불자들에게 대한 교육, 포교, 복지사업은 물론 청소년, 장애인, 지역민 등을 위한 사회복지 및 문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계종 국제간화선 센터건립

삼보사찰 중 5천평규모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 간화선 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8월 20일 발표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간화선 수행은 불교만이 아닌 우리민족의 정신문화이며 국제적인 문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국제 간화선 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 간화선 센터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며 건립되는 삼보 사찰 중 한곳으로 5천평규모에 240억의 건립경비를 예상하고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예산이 확정될 경우 조계종은 센터건립에 따른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천태종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법회

노인 진료서비스, 장애자를 위한 법회

천태종은 정기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은 소속 사찰에서 열리는 정기법회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각 장애인들도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우선 서울 관문사 정기법회부터 시작되는 무료 진료 서비스는 의사, 약사, 간호사, 일반 봉사자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법회장내 배치하여 상담, 진료, 처방, 투약 등을 제공한다.

또한 종단 소속 사찰의 신청을 받아 월 2회씩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지역사찰까지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의료인 현황을 파악하여 천태의료봉사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종도 상호간 친한하는 문화 형성과 봉사 및 후원 등 사회발전을 위해 숭선수행하는 사찰을 발굴하기 위한 '릴레이 칭찬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하여 문덕(총무원장)스님이 첫 주인공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인공은 다시 다음 주인공을 선정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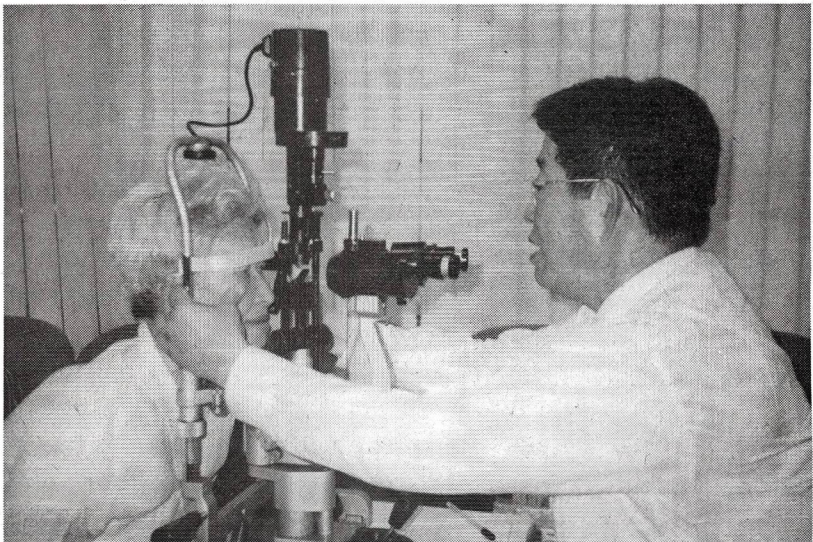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은 청각 장애인들이 법회에 참석하여 부처님의 법을

들도록 하기 위하여 수화전문가를 고용하여 법회때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해 통역을 담당하고 복지제도를 구현할 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역삼 주간보호센터 복지사업

어르신들 치매 정밀검진 실시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역삼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난 8월 22일, 주간보호센터를 이용 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강남구



에서 실시하는 치매검진대상인 홀수년생 이용자분들을 모시고 대치 큰사랑 병원을 방문·치매검진을 실시하였다.

VEGA 뇌파검사 및 전문의의 문진을 통해 치매여부를 진단하고 전문의 의견서와 처방전을 각 가정내 발송하여 어르신 건강관리에 도움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 실시한 안과 진료결과를 토대로 백내장 수술이 요구되는 재가어르신 4분이 직접 마누바세 안과를 방문·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무료수술이 가능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2분 외 저소득 무의탁 독거어르신 2분의 수술비는 강남롯데백화점에서 후원해 주어 9월 1일 수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역삼 주간보호센터는 지역사회 내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여 어르신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신행체험 ④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민순분(불국화)보살 (만보사 신정회 회장)

오늘도 서원 당에 나와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한 없이 흐르는 눈물속에 지난 세월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7남매 중 장남의 아들에게 시집을 와서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으며 생활한 지가 20여년! 철도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내나이 40세에 1남 3녀의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놓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세상으로 떠나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시던 날 하늘은 무너지고 땅은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의 몸으로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걱정이 앞을 가리며 온 세상이 캄캄하게 보이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도중에 남편의 천도재를 올리기 위해 만보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처음 만보사를 방문하였을 때 부처님은 보이지 않고, 전수님은 머리를 깎지도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 때 총지화 전수님의 모습과 불법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

도에 인연 없으니 누가 그대 제도하랴 삼야도에 깊이 빠져 온갖 고통뿐인 것을..."

경전의 내용을 설하시면서 어떤 때는 혼내고, 어떤 때는 어머니같이 타일러 주시면서 부처님의 법이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어, 결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부처님만 보면서 열심히 불공해라는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 스칩니다.

이렇게 전수님과 인연으로 괴롭고 힘들 때면 서원당에 나와 눈물로 하루를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 먹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며 학숙을 하며 파출부일을 하며 시어머니 병수발하며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며 한 시라도 여유시간 없이 열심히 앞만 보며,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루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보니 어느덧 환갑의 나이가 되어 자녀들은 모두가 성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생활하고 지금은 오로지 자신의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MBC방송국에서 추석특집 가족노래 열창의 녹화방송을 하였습니다. 95년 4월 대전시장에서부터 효행상을 수상받아 효행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노래열창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지도 않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부처님만 보면서 불공 가정의 화목은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

을 하고 남편의 천도재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만보사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방황도 많이 하고 의심도 많이 하였지만 그때마다 전수님은 얼굴만 봐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하고 의심할 정도로 법회가 끝나고 살며시 다가와 "열드려 바라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결렬한 뜻을 일으켜 기어코 성취하겠다는 마음으로 속된 인연과 뉘비편 소견들을 모두 버리고 진실로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의 공안을 잘 참구하되, 대오써 법칙을 삼고 부디 스스로 가버어 여겨 물러서지 말지어다. 이 말에는 성인이 가신지 오래되어 마가 강해지고 법이 약하며 사된 사람이 많아서 남을 잘 지도하는 이가 적고 남을 잘못 지도하는 이가 많으며, 지혜로운 이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니라. 그리하여 스스로만 도를 닦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나니, 무릇 수행에 방해되는 인연이 말할 수 없이 많으니라. 그대가 길을 잘 못 들기 염려하여 내 좁은 소견으로 열 가지 문을 마련하여 경책하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이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도 어기지 말기를 바라노라. 어리석은 마음으로 안배우면 교만만 늘고, 어두운 마음으로 안닥으면 이상·인상만 크게 배고픈데 마음만 높으면 굶은 호랑이 같고, 아는 것이 없이 함부로 놀면 원승이 갈래 샅된 소리 마구니 말은 곧잘 들어도 성인 말씀 현인의 글은 집지 듣지 않네 착한

과 동사무소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효행상을 수여받게 된 것입니다.

병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도 울었지만 그때 조금더 잘 모실 걸 하는 후회만이 남습니다.

저는 저희 집 가훈을 화목으로 정했습니다. 가정의 화목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남에게 베푸는 마음과 실천이 행해져야 합니다.

배불지 않고 남의 아픔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행기면 절대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름이 썩어 나무가 잘 자라듯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항상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소설을 쓸 수 있는 분량이지만 모든 것은 덧없는 것, 세월의 흐름속에 묻혀버리는 것, 세월따라 물결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방법과 방향을 바로잡아 준 부처님과 총지화 전수님께 감사사를 드리고 어려운 환경에도 자녀들이 너무 잘 키워주셨고 고맙습니다. 모든 불자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공명이 가득하시어 해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회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친조회원 - 일일금역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남골당 건립 추진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사원탐방은 교도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교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교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마음자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해탈의 길



새벽 맑은 공기가 가슴속 깊은 곳으로 들어오며 몸속에 있는 모든 번뇌를 한 순간에 쓸어버릴 것 같은 기운이 온 몸을 감싼다.

불교의 요람이요, 신라 천년의 고도로서 불국토를 유지하고 있는 경주! 8월 중순이지만 뜨거운 햇살은 여전히 푸른 창공에서 환하게 미소지으며 들관에는 실록의 목결로 출렁이며 오는 나그네를 반기기 때문이다. 경주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타고 안강행 버스를 탔다. 버스는 경주시내를 지나고 짙은 녹색으로 가득찬 시골마을을 지난다.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환하게 피어나 행인들에게 인사 한다. 안강읍에서 하차하여 주위를 둘러보니 웅장한 건물로 모든 세속의 번뇌와 고통을 해탈하고 세상의 삶에 걸림이 없이 바람이 불면 바람결 따라 비가 오면 물결 따라 유유자적하며 오로지 부처님의 참 깨달음을 구원하는 자태로 굳건하게 서있었다.

건화사의 유래

건화사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2년 총지종 창종과 함께 교도의 집을 전세로 임대하여 안강선교부로 시작하여 1973년 인근의 땅을 매입하여 헌공불사를 한 후 건화사로 개명하였으며 1982년 증축하여 1983년 헌공불사를 하여 현존하고 있다. 건화사는 초대주교로 자비혜 전수님이 임명되었으며, 청암, 일성혜 스승님, 해암, 최상관 스승님, 불멸심 전수님이 주교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정원심 전수님이 주교로 근무하고 계신다.

불법에 인연을 맺고 입장을 소멸하자.

잡아함경을 보면 "나쁜 업의 인, 나쁜 마음의 인, 나쁜 소견의 인이 있다. 그런 중생은 몸은 험악하고 목숨이 끝나면 반드시 나쁜 세계 지옥에 떨어진다. 비유하면 동근 구슬을 공중에 던지면 그것은 땅에 떨어져 굴러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처럼, 나쁜 업의 인, 나쁜 마음의 인, 나쁜 소견의 인이 몸이 험악하고 목숨이 끝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안정하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내게 생긴 나쁜 일을 살펴보십시오, 화만 내지 말고 왜 그러한가 살펴보십시오. 무엇인가 나쁜 일이 생긴 원인이거나 그 이전의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련존자는 길 도중에 어떤 사람이 비구형상을 하고 쇠편을 웃으로 입고, 몸이 불타고, 쇠로 된 발우에坐 된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전생에 비구가 되어 다른 비구들을 이들을 내뱉어 버린, 나쁜 짓이라고 말하며 욕했기 때문에 지옥고통을 받고 다시 그 남은 과보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집의 아이를 죽이거나 해치는 여자는 죽어서 아귀로 태어나 매일 일곱의 아이를 낳고는 배가 고파서 잡아먹는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몸의 악한 행위를 지니고 말의 악한 행위를 지니고 마음의 악한 행위를 지니고 성스러운 자들을 비방하고 잘못된 견해의 업을 지니고, 죽은 후에 나쁜 존재의 길, 괴로운 곳, 지옥에 태어나는 중생과 몸의 선한 행위를 지니고 말의 선한 행위를 지니고 마음의 선한 행위를 지니고 성스러운 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바른 견해의 행위를 지니고, 죽은 후에 좋은 존재의 길,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업을 믿는다는 것은 인과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바로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으로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이것으로 나쁜 과보를 받습니다. 업의 차를 잘 운전하는 사람은 수령의 도로로 달리지 않고, 악한 과보와 부딪혀 사고를 내지 않습니다. 업의 차를 함부로 운전하는 것은 술을 마시고 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이 위험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업의 차를 잘 몰고 다녀려면 먼저 인연있는 중생이 되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자주 부처님을 찾아 뵈고, 자주 좋은 법문을 듣고, 자주 스승님을 찾아 뵈는 일이야말로 인연있는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들음으로써 생기는 믿음과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믿음을 지니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천상에 태어나고 이 믿음이 없으면 나쁜 길로 들어가고 삼악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모든 중생들은 불법과 인연을 맺고 불법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질 때 업의 차를 잘 운전 할 수 있습니다.



교도들 한 분 한분을 실어나르며

오늘도 시간의 흐름속에 어김없이 자성일이 찾아옵니다. 밖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시골의 들녘은 실록의 녹색결로 출렁이며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세월의 허물 속에서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보라 속삭입니다.

건화사는 시골이라 대부분의 교도들은 농사철에는 뜨거운 햇볕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자성일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심이 돈독한 보살님들입니다.

특히 자성일 공식불공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몇 분 동안 걸어서 1시간에 한번씩 오는 버스를 타고 와야 합니다. 이러한 교도들을 볼 때마다 편안하게 자성일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하고 고민하다가 집까지 직접 방문하여 차로 모셔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조그마한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지만 승용차라 보살님들을 모시고 절까지 왔다가 다시 모셔다 드리기를 여러번 해야 합니다.

보살님들도 다른 보살님들을 모셔다 드리는 동안 농사철에 바쁜 일이 있더라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큰 차를 구입하여 모셔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움만 앞섭니다. 부산에서 직장생활하고 자성일이면 건화사에 와서 보살님들을 한 분 한 분 실어나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보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삶이요, 수행자의 길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저분들이 나의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들어 잘 모셔야 되는데 잘 모실 수 없어 어렵지만 오늘도 보살님들을 한 분 한 분 실어나르며 최선을 다해 모실 뿐입니다.

불공은 수행정진의 길

새벽 일찍 서원당을 들어서니 한 보살님이 며칠 째 열심히 염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버스도 새벽 일찍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서원당에 나왔을까?' 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보살님의 뒷 모습이 마치 관세음보살님이 조용히 앉아 있는 것처럼 아주 고요하게 편안한 모습을 하고 인기척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그 보살님은 서원당을 떠난 후 아무리 기다려도 몇 달 째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보살님이 혹시 귀신이 아닌가?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이 환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중생들이 불법에 인연을 맺고 신심을 가질 때 입장 소멸

나의 마음을 열때 그 세계가 진리의 몸인 법신의 세계

말을 삼가고 행동을 가벼이 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는 후 지금까지 자신의 수행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염송을 하고 있음에도 잡념과 번뇌가 가득하여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지만 그 보살님을 생각 할 때마다 수행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공덕이 생기고, 서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며, 항상 하심하는 자세로 오로지 일념으로 정진수행하는 가운데 전생의 업이 소멸되며 성불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중생은 한 순간의 외부 환경에 의해 수 십 년 동안 쌓아온 공덕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란 무릇 과도와 같은 크나큰 폭풍우가 몰아쳐도,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관찰하며, 항상 맑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공을 해야 하며, 계행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람불면 문뜩사리로 바람이 들어오듯 번뇌 망상은 한 순간 방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수행에 해방을 놓고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른 수행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내태한 마음 없이, 청정한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기위해 옹행정진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가 해탈의 길

유교경을 보면 "나는 아주 용한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알아 악을 주머니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나는 또한 훌륭한 길잡이와 같아서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느니 듣고서 가지 않는 것은 길잡이의 허물이 아니라,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법이 원래 다 구족되어 있으니 내가 더 오래 세상에 머물러 있다 할 지라도 더 이상 이익될 것이 없느니라. 이제부터 나의 제자들이 이 법을 끊임없이 이어서 그대로만 실천할 것 같으면 부처님의 법신이 항상 머물러서 없어지지 않으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모든 것은 스



스로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흠여지는 마음을 신·수·심·법의 사념처로 바로잡고 도심을 일으키고 계율로써 스승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가고 살아가는 법은 누구나 갖추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한번 바르게 쓰면 나와 남을 모두 살릴 수 있고,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삼매를 이루면 능히 해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무려 45년 동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오래 세상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익이 될 것이 없다. 이제부터 나의 제자들은 이 법을 끊임없이 이어서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부처님의 법신이 항상 머물러서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 나도 풍요로울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나의 보물 창고도 열고 남 또한 보물창고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갖고 있는 보물창고를 열 때 이 세상은 그대로 부처님 세계로 바뀝니다. 이 세계가 그대로 영원한 진리의 몸인 법신의 세계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삼매를 이루면 해탈세계가 열립니다. 이것이 참된 나를 찾는 묘법이요, 정법인 것입니다.

신·구·의는 삼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삼업 중 말은 생각과 행동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무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번뇌망상들까지 끊임없이 일고이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생각들 중 대부분은 그냥 사라지지만 일부는 말이라는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표현됩니다. 그 표현된 말이 뜻하지 않게 비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별 생각없이 한 말일지라도 일단 내뱉고 나면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마음은 평정을 잃게 됩니다. 곰곰히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생각과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이 많고 말이 많으면 실속이 없어집니다. 번뇌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마음이 고요해질 날이 없습니다. 실로 말이라는 것은 곱질에 불과합니다.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는데 움직이는 것은 굴러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사법이지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자리를 볼 수 있는 진리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밀이 동그란 항아리와 같습니다. 너무나 동그랗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항아리는 흔들립니다. 일렁일렁, 대부분의 시간동안 항아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속에는 구정물이 들어 있습니다. 번뇌망상이라는 구정물이 가리앉기 위해서는 항아리가 움직이지 구정물 찌꺼기가 언제나 부영계 떠다닐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움직이는 항아리는 계행이라는 빗줄로 '공공' 묶어 두어야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정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정력을 성취하면 찌꺼기는 저절로 가라앉고 위쪽에는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이 맑은 물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비치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수행자는 계, 정, 혜 삼학을 이루고 해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이는 몸을 정중히 가지고 말을 적게 하여 울렁거리는 항아리, 동요하는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자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언제나 말과 행동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원심 전수님은

"사랑을 끊고 부모를 떠나도록 한 깨달음은 불법의 세계가 평등한 때문이다. 만약 가깝고 멀리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니, 만약 마음 가운데 미움도 있고 사랑도 없고 취함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면 어찌 이 몸과 괴로움과 즐거움, 성함과 쇠함이 있으리. 평등성 중에는 이것과 저것이 없고 대원경 위에는 가깝고 먼 것이 끊어졌느니라. 삼악도의 고히에서 출몰함은 미움과 사랑에 얽혀 있기 때문이요, 욕도를 오르내림은 가깝고 먼 것을 따져 지은 업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경전의 내용을 인용하시면 서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계율과 청정한 모습으로 탐·치·삼독을 소멸하기 위해 나보다는 교도들의 해탈을 위해 오로지 수행하는 자세로 항상 배움의 자세로 생활하고 계신다.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3리 1138-3
전화 : (054)761-2466

